제 53호 구성원 결정하기

학생 팀 구성원을 정하는 일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학생들 스스로 알아서 정하게 하면 우선 교수님의 부담이 없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교수님께서 정해주는 팀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학생들끼리 정하게 하면 친구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구성원 중 한 명이 제 몫을 하지 않아도 눈감아 주는 일이 예사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팀 구성원의 수를 맞추기 위해 친구 아닌 다른 학생이 한 명 추가될 경우에는 그 학생이 아예 따돌림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팀에 여학생 한 명만 끼어 있는 경우에도 소외당하거나, 연락 담당이나 보고서 작성 등 보조 역할을 맡기 쉽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대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자기네끼리 모이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은 처음부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교수님께서 팀을 정할 때에 특별히 신경 써야하는 부분은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성(性)별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 학과 학생들이 듣는 과목에는 학과 소속을 참고하셔야 하며, 여러 학년 학생들이 듣는 과목일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번(또는 나이)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남학생이 많은 수업에는 어느 팀에도 여학생이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짝지어 주셔야 하고, 다학문 팀웍 경험이 중요할 경우에는 각 팀에 여러 학과 소속 학생들이 구성원을 이루게 합니다 (너무 뻔한 소리인가요?).

하지만 팀웍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경우 교수님께서 정해주신 팀 구성원들은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학습 효과를 약간 손해 보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구성원을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서로 비슷한 학생들이 모인 팀은 (학생들 스스로 정한 팀) 서로 마음이 편하고 의사소통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료의식 때문에 너무 쉽게 주류 의견에 휩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반대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인 팀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창의력이 요구되는 과제에 적합하지만 처음에 서로 서먹하거나 좀처럼 의견 수렴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결국 팀 구성원의 수나 구성원을 어떤 방법으로 정하는 가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조벽, 1999